

# 무등기 품어 “모교에 영광을”



##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 오늘 광파르 전국 대표 23개팀 참가 8일간 열전

아마 야구 선수들의 짚음과 패기가 빛고  
울을 뜯겁게 달군다.

제 17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14일  
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개막해 오는 21일까  
지 8일간의 열전을 벌인다.

광주일보사와 대한야구 협회가 공동으로  
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광주일고, 총암고,  
안산공고, 부산공고 등 지역예선을 통과한  
23개 고교팀이 출전해 모교의 명예를 걸고

우승에 도전한다.

14일 오전 10시 시작되는 개막전에서는  
을 시즌 대통령배 패권을 차지한 휘문고와  
인천의 명문 동산고가 격돌한다.

지난 대회 준우승에 빛나는 장충고는 오  
후 12시30분 전주고와 첫 대결을 갖고, 부산  
공고와 성남고는 오후 3시부터 경기를 펼친  
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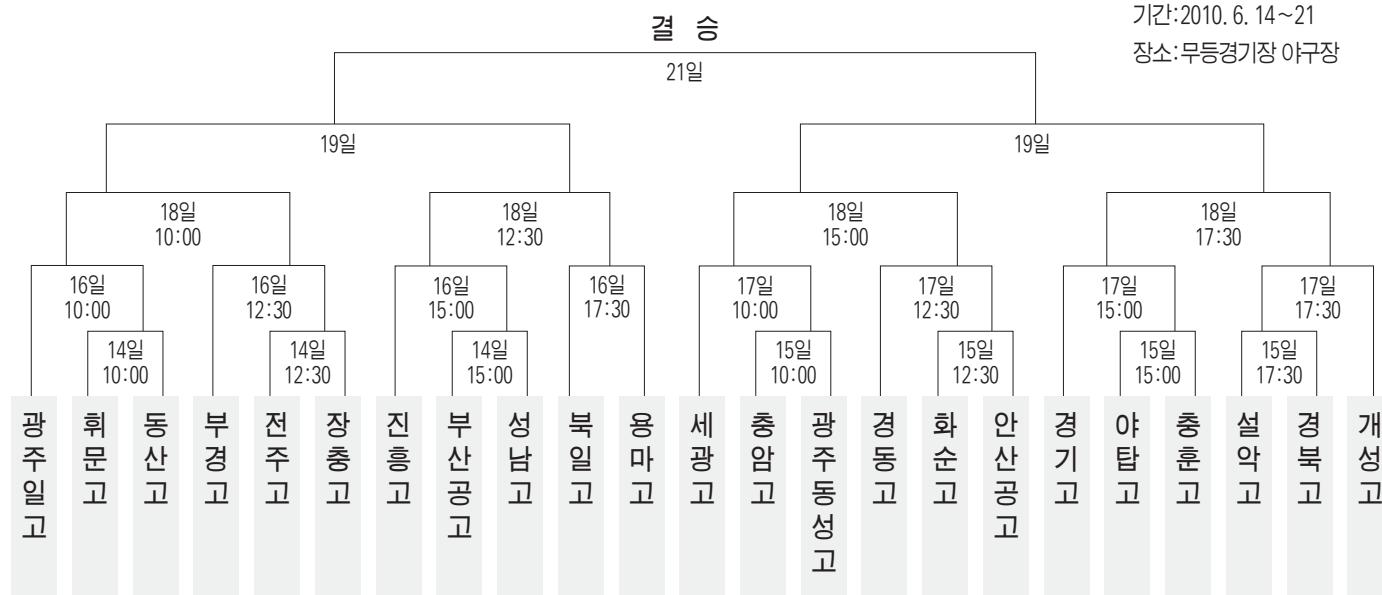
이번 대회에는 2년 만에 황금사자기 우승

컵을 되찾은 광주일고를 비롯해 동성고, 진  
흥고가 광주 야구의 자존심을 걸고 출격을  
준비하고 있다. 전국 유일 군단위 팀 화순고  
와 강원 야구의 선두주자 설악고도 지역의  
명예를 걸고 출사표를 던졌다.

지난해 무등기 정상에 올랐던 개성고(옛  
부산상고)는 우승의 주역이었던 좌완 김민  
식을 앞세워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.

한국 야구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야구 스

제17회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대진표



기간: 2010. 6. 14~21  
장소: 무등경기장 야구장



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10 월드리그 국제배구대회 A조 예선 한국-불가리아전. 한국의 김학민이 불가리아 블로킹을 뚫고 오른손 강타를 터뜨리고 있다. /연합뉴스

## 설월여고 정선아 겸도 ‘왕중왕’

설월여고 겸도팀이 전국 정상급 기량을  
펼쳤다.

설월여고 정선아(사진)는 제19회 회장기  
전국고교검도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,  
단체전에서 설월여고는 아쉽게 준우승에 그  
쳤다.

현재 고교상비군인 정선아는 지난 12일  
전북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 
개인전 결승에서 이화영(충북공고)을 맞아  
단체전에서 3위에서 한 단계 더 뛰어 오르



우승했다. 이로써 정선아는 올 전국대회 첫 정

상의 기쁨도 함께 누렸다. 정선아는 준결승에  
서 김은혜(장곡고)를 2-1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.

단체전 결승에서 장곡고를 상대로 선전을  
펼쳤으나 1승2패로 정상 문턱에서 주저앉고  
말았다. 하지만 설월여고는 지난 3월 준계대  
회 단체전에서 3위에서 한 단계 더 뛰어 오르

면서 전국 정상권 팀으로서의 기량을 갖춰  
가고 있다.

지난 2003년 창단, 현재 10명(3년 4명, 2  
년 2명, 1년 4명)의 선수로 구성된 설월여고  
겸도팀은 매일 방과 후 2시간씩 훈련을 쌓으  
며 전국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.

한편 남고부 개인전 결승에서 서석고 김  
동민이 이윤표(대구공고)에게 손목치기를  
허용,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.

/서승원기자 swseo@kwangju.co.kr

### 회장기 전국검도대회 개인전 우승

#### 단체전 준우승…서석고 김동민 銀

## 반갑다, 김상현 부활포

### 복귀 후 첫 홈런 KIA 3연패 끝어…서재웅 4승

‘5할 본능’ 호랑이가 하루만에 3위 자리에  
복귀했다.

KIA 타이거즈가 13일 무등경기장 야구장  
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시즌 11차전에서  
김상현과 안치홍의 장외홈런 두 방을 앞세워  
9-5로 3연패에서 탈출했다.

전날 폐배로 공동 3위에서 5위까지 추락  
했던 KIA는 치열한 순위 싸움중인 삼성, 롯  
데가 난리에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삼성  
과 함께 다시 공동 3위에 이를 올렸다.

어깨 피로누적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됐던  
서재웅은 1군 복귀전에서 503분의 20이닝동  
안 사구 없이 5피안타 2실점으로 마운드  
를 지키며 시즌 4승째를 거뒀다.

김상현의 홈런포가 재가동에 들어갔다.

4회말 선두타자로 나온 김상현이 풀카운  
트 승부 끝에 더마트레의 슬라이더를 잡아  
당겨 좌측 담장 넘어가는 비거리 130m의 장  
외홈런을 만들었다. 무릎수술로 자리를 비  
웠던 김상현은 지난 10일 1군 복귀 이후 12  
타석만의 첫 안타를 시원한 홈런으로 장식  
했다. 선취점을 뽑은 KIA는 김상현의 안타  
에 이어 2루수 키를 살짝 넘기는 안치홍의  
안타로 2-0을 만들었다.

5회초 LG의 추격이 이뤄졌다. 앞선 두 경  
기에서 연달아 홈런을 터트리며 KIA를 2연  
패에 빠트렸던 박병호가 2루타로 출루했다.  
선두타자를 내보낸 서재웅은 박용택·김태  
완에게 2루타를 맞으면서 2-2 동점을 허  
용했다.

하지만 전날 영봉파의 수모를 당했던 타  
선이 6회말 무서운 집중력을 과시하며 설욕  
전에 나섰다.

박기남이 볼넷으로 걸어나간 뒤 이용규의  
희생번트를 더해 1사 2루를 만든 KIA는 김  
선빈의 우전안타와 김상현의 볼넷으로 만루  
를 채웠다. 최희섭이 조구를 공략해 우의수  
앞에 떨어지는 2타점 적시타를 터트렸다. 김  
상현도 바뀐 투수 정재복을 상대로 안타를  
추가하며 5-2를 만들었다.

‘아기호랑이’ 안치홍은 LG의 추격을 따돌  
리는 채기포를 쏘아올렸다. 앞선 타석에서  
행운의 안타로 타점을 올렸던 안치홍은 2사  
1-3루의 기회에서 좌측 담장 넘어가는 장외  
홈런을 터트리며 3타점을 쓸어담았다.

8회초 곽정철이 박병호에게 쓰리번 홈런  
을 맞기는 했지만 KIA는 추가 실점 없이 9-5  
승리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.

/김여울기자 wool@kwangju.co.kr

## 허미정 공동 1위 LPGA 스테이트팜 클래식 3R

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 투어 스테이  
팜 클래식 3라운드가 악천후로 순연된 가  
운데 허미정(21·코오롱)이 2라운드에 이어  
공동 1위를 달렸다.

허미정은 13일(한국시간) 미국 일리노이  
주 스프링필드의 웨더 크리크 골프장(파72,  
6천746야드)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3

개 홀을 돌며 버디 1개로 1타를 줄여 중간합  
계 13언더파를 쳤다.

전날에 이어 1위 자리를 지킨 허미정은 지  
난해 세이프웨이 클래식 우승 이후 LPGA투  
어 통산 2승을 향해 나아갔다.

2라운드를 공동 3위로 끌마친 크리스티  
커(미국)는 4번홀까지 이글과 버디를 1개씩

뽑아내면서 3타를 줄여 허미정과 공동 선두  
로 뛰어왔다.

하지만, 천등을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치  
면서 46명의 선수가 3라운드를 마치지 못한  
채 경기는 중단됐다.

남은 3라운드 경기는 14일 속개되며 이 라  
운드가 끝나자마자 마지막 4라운드가 진행  
된다.

전날 단독 2위였던 양희영(21·삼성전자)  
은 3번홀까지 1타를 줄이며 선두에 1타 뒤진  
12언더파로 앙나 노르드크비스트(스웨덴)  
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.

/연합뉴스

## MOVIEHOLIC 영화 이벤트

**MEGABOX**

1관	방자전 (18세)	최고급관
2관	섹스 앤 더 시티 (18세)	
3관	엣지 오브 다크니스 (18세) / 유령작가 (15세)	
4관	방자전 (18세)	
5관	드래곤길들이기 3D(자막)(더빙)(전체)	
6관	베스트 키드 (12세) / A-폭공대 (12세)	
7관	베스트 키드 (12세)	
8관	페르시아의 왕자 (12세)	
9관	A-폭공대 (12세)	

\* 호남주차타워 이용 시 2시간 30분 무료  
(단, 영화 관람고객이 한팀 : 2시간 30분 초과시 점심요금 부과)

**콜롬버스시네마**

1관	섹스 앤 더 시티 2 (18세)	
2관	에지 오브 다크니스 (18세) / 하녀 (18세)	
3관	방자전 (18세)	
4관	방자전 (18세)	
5관	베스트 키드 (12세)	
6관	드래곤길들이기 3D(자막)/내 강ape 같은 애인 (15세) 8/1(화) 나이아가라 월드컵 한국VS그리스 경기 중계	
7관	페르시아의 왕자 (12세) / A-폭공대 (12세)	
8관	로빈 후드 (15세) / 유령작가 (15세)	
9관	페르시아의 왕자 (12세)	
10관	A-폭공대 (15세)	

3D 디지털 상영!  
4/1(목) 상무점, 하남점 동시 개봉!!

**CINUS** 색깔 있는 영화산책 씨너스

1관	페르시아의 왕자 (18세)	
2관	베스트 키드 (12세)	
3관	방자전 (18세)	
4관	섹스 앤 더 시티 2 (18세)	
5관	에지 오브 다크니스 (18세) / 유령작가 (15세)	
6관	A-폭공대 (15세)	
7관	드래곤길들이기 3D(자막)(더빙)(전체) 내 강ape 같은 애인 (15세)	

씨너스 전대 3D(4K) 상영!!

\* 무료주차 3시간 \*  
ARS 전화예매 문의 227-1960  
(광주 세무소 앞 흐름타워차장 - 단, 입금권 구매 고객에 한함)  
〈글래디에이터〉의 10년 신화가 폐진다!

**Primus** 영화보는 즐거움이 있는곳 제일극장

1관	방자전 (18세)	
2관	섹스 앤 더 시티 2 (18세)	
3관	나이트메어 (18세)	
4관	내 강ape 같은 애인 (15세)	
5관	하녀 (18세)	
6관	로빈 후드 (15세)	
7관	유령작가 (15세)	

\* 무료주차 3시간 \*  
ARS 전화예매 문의 227-1960  
(광주 세무소 앞 흐름타워차장 - 단, 입금권 구매 고객에 한함)  
〈글래디에이터〉의 10년 신화가 폐진다!

제공은 기관 : www.megabox.co.kr  
구연면 악극시거리 ☎ 1544-0600

1588-7941 상당현연결 방면→(1번 or 2번)→0번

제공은 기관 : www.cinus.co.kr / 1544-0070  
북구보건소 건너편 ☎ 511-1000

제공은 기관 : www.primuscinema.com/www.jellicinema.co.kr  
흥장로 3가 VARS 전화예매 ☎ 227-1960

**CINUS** 색깔 있는 영화산책 씨너스

1관	페르시아의 왕자 (18세)	
2관	베스트 키드 (12세)	
3관	방자전 (18세)	
4관	섹스 앤 더 시티 2 (18세)	
5관	에지 오브 다크니스 (18세) / 유령작가 (15세)	
6관	A-폭공대 (15세)	
7관	드래곤길들이기 3D(자막)(더빙)(전체) 내 강ape 같은 애인 (15세)	

씨너스 전대 3D(4K) 상영!!

\* 무료주차 3시간 \*  
ARS 전화예매 문의 227-1960  
(광주 세무소 앞 흐름타워차장 - 단, 입금권 구매 고객에 한함)  
〈글래디에이터〉의 10년 신화가 폐진다!

**Primus** 영화보는 즐거움이 있는곳 제일극장

1관	방자전 (18세)	
2관	섹스 앤 더 시티 2 (18세)	
3관	나이트메어 (18세)	
4관	내 강ape 같은 애인 (15세)	